

셀예배 교안

열왕기상 11:1-8 | 대적자들

다함교회 | 열왕기상 강해 13 | 진행 시간 약 60~75분

인도자 준비 안내

- 이번 과의 핵심 주제는 “나뉜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더했습니다. 셀원들이 배교가 아니라 혼합주의의 위험을 자기 삶에서 확인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초점은 솔로몬의 타락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40년에 걸쳐 서서히 갈라진 마음의 과정에 있습니다. 나훔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로 흐르지 않도록, 4절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로 계속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 “나의 산당”을 나누는 대목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강요하지 마시고 인도자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 주십시오. 셀에서 나눈 이야기는 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기로 처음에 약속합니다.
- 마지막은 반드시 복음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소망은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다는 데 있지 않고,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A4 백지(각 1장, 마지막 적용 활동용).

셀예배 순서

- 찬송 — 새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5분)
- 여는 기도 — 셀리더 (5분)
- 마음 열기 나눔 (5분)
- 말씀 봉독 및 관찰 — 열왕기상 11:1-8 (10분)
- 본문 해설 (15분)
- 나눔 질문 (20분)
- 적용 활동 — “나의 산당 헐기” (10분)

8. 합심 기도 및 마무리 (10분)

9. 결단 찬송 —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여는 기도 (셀리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 저희 삶에 뿌리내리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실상이 주의 빛 앞에 드러나 정직하게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마음 열기 (5분)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니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속이 끓아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짧게 나누어 봅시다. (사람, 관계, 물건, 건강 등)
-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 사람, 직장, 자녀, 건강, 인정 등)

※ 말씀 봉독 — 열왕기상 11장 1-8절을 돌아가며 한 절씩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이어서 인도자가 11장 14절과 26절을 읽어 줍니다.

3. 본문 해설 (15분)

(1) 천 명을 사랑한 왕 (1-3절)

본문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더라”로 시작합니다. 후궁이 칠백 명, 첩이 삼백 명이었습니다. 고대 왕실의 혼인은 사적인 애정이 아니라 국제 조약의 형식이었습니다. 공주가 들어올 때 그 나라의 신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애정의 기록이 아니라 안전을 향한 계산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산성 삼는 대신 혼인 동맹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고, 그 대가로 천 개의 신을 왕궁 안에 들였습니다.

(2) 몰라서 범한 죄가 아니다 (2절)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임이라.” 본문 2절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솔로몬은 몰라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옮겨져서 넘어진 것입니다. 죄는 무지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랑의 문제입니다.

(3)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인생 (4절)

4절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온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샬렘”은 솔로몬의 이름 “셀로모”와 같은 어근입니다. 평화와 온전함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정작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시점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하루아침의 배교가 아니라 사십 년에 걸쳐 서서히 갈라진 마음이었습니다. 큰 균열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실금에서 시작됩니다.

■ 정리

핵심 : 무너짐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오래 방치된 작은 타협이 나이 들어 마음 전체를 기울게 합니다.

(4) 빼지 않고 더했을 뿐 (5-8절)

솔로몬은 여호와를 예배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더했을 뿐입니다. 그는 시돈의 아스다롯과 암몬의 밀곰을 따랐고, 성전이 건너다보이는 예루살렘 앞 산에 그모스와 몰록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가 노골적인 배교보다 위험한 이유는, 겉모습이 여전히 신앙이어서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대로 서 있었고 제사도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나뉘었을 뿐입니다.

(5)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적자들 (11:14-40 참고)

하나님은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을 일으키십니다. 14절과 23절의 “대적자”는 히브리어로 “사탄”, 곧 맞서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힌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주권은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세 사람 모두 애굽과 잇달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안전을 위해 붙잡았던 애굽이, 도리어 대적자를 길러 낸 온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붙잡은 것은 언제나 결국 우리를 겨

눕니다.

(6) 복음으로 읽기 — 온전하신 왕

솔로몬은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유다 지파에서 오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아버지 앞에 온전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천 명을 사랑하다가 마음을 잃었으나, 그리스도는 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다는 데 있지 않고,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요 21:15).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랑의 방향을 다시 물으십니다.

4. 나눔 질문 (20분)

※ 관찰 → 해석 → 적용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②④⑤를 우선 다룹니다.

① 관찰 — 숫자가 말해 주는 것

1-3절의 후궁 칠백 명과 첩 삼백 명은 애정의 기록입니까, 계산의 기록입니까? 공주가 들어올 때 그 나라의 신도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② 관찰 —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4절에서 성경이 솔로몬을 평가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샬렘)”이 솔로몬의 이름과 같은 어근이라는 사실은 이 평가를 어떻게 더 무겁게 만듭니까?

③ 해석 — 혼합주의가 더 위험한 이유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혼합주의가 노골적인 배교보다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해석 — 사랑의 방향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2절). 죄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 문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경우에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긋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⑤ 적용 — 나의 애굽과 나의 산당

내 인생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안전을 위해 붙잡았는데 도리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전이 보이는 자리에 조용히 지어 둔 나의 “산당”, 곧 신앙생활은 유지하면서 절대 내려놓지

않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⑥ 복음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대적자를 “일으키셨다”(14절)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함께 읽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5. 적용 활동 — “나의 산당 헐기” (10분)

나누어 준 백지를 세로로 세 칸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1. 윗칸 — 최근 내 신앙에 생긴 “실금” 한 가지를 적습니다. (기도의 형식화, 말씀 앞의 무감각, 습관적 타협 등)
2. 가운데칸 — 내가 이번 주에 헐어야 할 “산당” 하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셀원 앞에서 짧게 나눕니다.
3. 아랫칸 — 이번 주 중보기도 짝이 될 셀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주중에 한 번 안부를 전합니다.

작성한 종이는 성경 사이에 끼워 두고, 한 주간 매일 아침 5분 「주간묵상집」의 본문을 읽고 한 줄 기도를 적습니다. 다음 셀모임 때 짧게 결과를 나눕니다.

6. 합심 기도 제목

- 나뉜 마음이 회복되어 여호와께만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산성 삼아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 다함교회와 다음 세대가 혼합주의를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7. 인도자 마무리 기도

우리의 온전함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눈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도 여호와를 뵈어 적은 없으나 다른 것을 조용히 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이 보이는 자리에 지어 둔 저희의 산당을 이 시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헐어 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안전을 위해 붙잡았던 저희의 애굽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산성 삼아 결

정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의 실금이 더 벌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메워 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도리어 더 온전해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 주시고, 다시 만날 때에 은혜의 간증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함교회 셀예배 교안 · 열왕기상 강해 13 · 왕상 11:1-8